



부여당 유인원 기공비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복신(福信)은 백제 말기의 왕족이자,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장이다. 도침(道琛)과 함께 임존성(任存城)·주류성(周留城)을 거점으로 삼았고, 왜에 있던 부여풍(扶餘豐)을 왕으로 옹립하는 등 부흥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도침과 반목하여 도침을 살해하고, 이어 부여풍까지 죽이고 부흥운동의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부여풍에게 죽음을 맞았다.

## 2 가계와 백제 멸망 이전까지의 활동

복신은 무왕(武王)의 조카이자 의자왕(義慈王)의 사촌이다. 왕족이므로 성은 부여씨(扶餘氏)이고, 이름은 복신이다. 『일본서기』와 당유인원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는 귀실복신(鬼室福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어난 연대는 알 수 없다.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던 중 663년 부여풍(扶餘豐)에게 죽임을 당했다.

복신이 문헌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627년(무왕 28년) 8월이다. 이때 무왕은 조카인 복신을 당에 조공사로 보냈다. 그리고 복신은 백제와 신라의 화해를 중용하는 당 태종(唐太宗)의 새서(璽書)를 가지고 돌아왔다. [관련자료](#) 그러나 660년(의자왕 20)에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다시 등장할 때까지 33년간 복신에 관한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백제의 상황을 통해 복신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한 주장이 있다. 복신은 왕의 조카로서 당에 사신으로 다녀올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무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관산성전투에서 당한, 신라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다. 그리고 백제왕으로서 대내외적 인정을 받기 위해 대당 외교에도 신경을 썼다. 그런데 복신이 받아온 태종의 답신에는 신라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고 양국이 화목하게 지낼 것을 중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백제의 입장에서는 대당 외교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복신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외교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백제부흥운동의 시작과 사비성 포위

660년(의자왕 20) 7월 13일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도망갔던 의자왕은 웅진방령 예식진(熊津方領 禰寔進)에게 잡혀 사비성으로 끌려왔다. 7월 18일, 의자왕의 항복으로 백제는 멸망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백제 부흥을 위한 봉기가 일어났다. 그중에서 복신은 도침과 함께 손을 잡고 부흥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인물이다.

복신은 여러 세력과 힘을 합쳐 백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흑치상지(黑齒常之)는 백제가 멸망하자 나당군에 항복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탈출한 인물이다. 복신과 흑치상지는 백제 멸망 직후부터 임존성에서 함께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부흥운동이 종식되는 임존성전투 이전까지 흑치상지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흥운동은 사실상 복신과 도침의 주도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9월 23일, 복신과 도침을 필두로 한 부흥군이 사비도성을 포위하자, 도성 내의 유인원(劉人願)과 김인태(金仁泰)의 나당군이 고립되기에 이른다. 이에 당군과 신라병사들이 백제 부흥군과 싸워